



SARANG

시론 02

사용도구

답사기 03

광주광역시건축사회 답사동호회 _ 송도국제도시, 인천 차이나타운 일대 답사기

광주 지역 뉴스 04-05

'제22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 그림그리기대회' 개최
광주건축사회, '제29회 광주광역시 건축상' 수상작 발표
광주건축사회, 2025년 인천 아시아건축사대회 참가 및 건축물 투어

전남 지역 뉴스 06-07

전남건축사회, 해체공사 역량 강화 교육 실시
전남 영암군, '2025 대한민국 한옥문화 비엔날레' 개최
전남 무안군, '신청사 건립공사 설계공모' 추진

전북 지역 뉴스 08-09

전북특별자치도, '제26회 건축문화상 공모' 안내
전북특별자치도 건축문화제, 솟품 영상 공모전 개최
전북특별자치도, 제1호 우수건축자산으로 '군산시민문화회관' 등록

독자광장 10

책 소개 _ 디자인이 한눈에 보이는 책방도감
한 편의 시 _ 침묵
한 장의 사진 _ 달려라 피아노(Run Piano)

제29회 광주광역시 건축상 수상작 11-13

비주거 부문 최우수상 '연경'
비주거 부문 최우수상 '양림들'
사회공공 부문 최우수상 '광주중앙도서관 리모델링'
사회공공 부문 우수상 '동구 국립도서관 책정원'
주거 부문 우수상 'White Brick'
비주거 부문 우수상 '비테라인테라스'
비주거 부문 우수상 '포시즌'
비주거 부문 우수상 'Hello'



건축문화 사랑

광주·전남·전북 건축사회 신문
News 2025.9.190호

광주광역시건축사회 발행인 : 강필서, 이경일, 이성열
전라남도건축사회 창간일 : 2009년 11월 10일
전북특별자치도건축사회

<http://gjkira.kira.or.kr>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



건축문화사랑을 스마트폰에서도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QR 코드로 접속하신 후, 상단 '건축문화사랑'을
클릭하시고 홈페이지에서 월별 PDF파일을 다운받으시면
구독 가능합니다.

사용도구



최상철 논설위원

건축사사무소 연백당
대표 건축사
ybdsc@naver.com

- 1993. 12. - 현재
〈건축사사무소 연백당〉
대표 건축사,
국가유산 수리기술자,
한옥 / 생태건축 / 국가
유산 실측설계
- 1994. 10. - 2008. 6.
전북일보에 〈건축상담〉,
〈최상철의 건축이야기〉
연재
- 2004. 10. - 2005. 3.
전민일보에 〈건강한 집,
건강한 생활〉 기획연재
- 2010. 4. - 2011. 12.
월간 자치광장에 〈최상
철의 집이야기〉 연재
- 2012. 1. - 2014. 12.
월간 열린전북에 〈삶과
건축〉 연재
- 저서로는
〈내 마음을 두드린 우리
건축〉, 〈내가 살던 집 그
곳에서 만난 사랑〉, 〈전
주한옥마을〉(공저)

지금 우리는 인공지능이 날로 새롭게 구현해나가는 변화무쌍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경도된 채, 불안과 기대 속에 점점 더 가상 세계로 깊이 빠져들어 가고 있다. 이른바 제4차 산업혁명이다.

그런데 태풍과 폭우 속에 갇혀있으면 세상은 온통 비바람투성이로 보이겠지만, 그 비바람도 멈출 때가 있고 심지어 그 바깥 세계는 바람 한 점 없는 고요가 본바탕 그대로 드러나기도 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과거 우리 인류가 맞이한 몇 차례의 산업혁명에서도 우리는 그걸 목도(目睹)했다. 처음 태동할 때는 당장이라도 모든 게 휩쓸려갈 듯 요란했지만, 사실 지난 산업혁명은 그 '사용도구'의 혁신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도구라고 하면, 우선 선사시대의 '신석기 혁명'을 이끈 주먹도끼나 슥베찌르개에서부터 증기기관과 컴퓨터에 이르기까지 실로 다양하지만,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장 포괄적인 도구는 바로 건축이었으며, 인간이 창출한 도구 대부분이 사실상 건축공간으로 집결되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주 먼 옛날, 동굴과 바위굴에 살던 인류는 신석기시대가 되어서야 비로소 수혈식 '움집'을 짓고 그 중앙에 화로와 곡물창고를 부가하기 시작하였으며, 18세기 말 영국에서 태동한 근대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철과 유리 그리고 시멘트를 유효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되자, 지금과 같은 마천루(skyscraper)를 경쟁적으로 도심 곳곳에 세우며 엘리베이터와 방재설비 등 최첨단시설들을 차례로 건축에 집약시켜 놓은 것이다.

그런데 건축에 집결된 각종 도구들의 성능이 발전되기 위해서는, 항시 출동명령을 기다리는 '비상대기' 모드로 전환되어 있어야 한다. 지금도 우리가 머무는 이 건축공간 곳곳에서 그 사용도구들이 즉발(即發) 상태로 비상대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우선,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電氣)는 직접 벽에 부착된 작은 콘센트까지 흘러들어와 즉시 출동상태로 대기하고 있는가 하면, 상수원 보호구역에서부터 취수정과 정수장을 거쳐 그 먼 거리를 씹 없이 달려온 상수(上水)는 바로 주방 싱크대 수도꼭지 앞에 멈춰 서서 즉발(即發) 할 수 있도록 강한 수압(水壓)이 걸려 있다. 다들 누르고 꽃기를 기다리는 하인들 같다. 또 수화기만 들면 "웅-" 하며 말쑥을 기다리는 전화기도 그 코

드는 항상 통신회로에 꽂혀있고, 에어컨이나 텔레비전도 '대기 중'이라는 불빛을 반짝거리며 리모컨 명령을 기다리고 있지 않던가?

그 결과 오랜 세월 동안 동굴과 움집에서 웅크리고 살던 우리 인류는, 마침내 버튼 하나로 각종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홈오토메이션(home automation)까지 건축에 장착시켜 놓기에 이르렀다. 게다가 최근에는 ChatGPT의 등장으로 그저 말 한마디, 손짓 하나, 생각 하나로 이 모든 시스템을 통제할 수 있는 단계에 진입하게 된 것이다.

옛날에는 양반집에서나 하인들이 항상 대기하며 집주인의 수발을 들었고, 그렇지 못한 집에서는 식구들 모두 손을 건어붙이고 집안일에 나서야만 했지만, 불과 몇십 년 만에 지금은 여러 설비시스템과 전자제품들이 그 모든 걸 대신해주는 세상으로 대체되었다. 실로 괄목할만한 혁신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강추위가 사납게 휘몰아치던 지난해 겨울, 우리 건축물에 내장되어 있던 '비상대기' 상태의 선봉장들은 곳곳에서 의외로 쉽게 그 한계를 드러내 버리고 말았다. 수도관에 가득 차 있던 물이 얼어 터졌는가 하면, 배수관마저 막혀서 역류하기 일쑤였고, 또 번기는 일찌감치 동파되어 짙 짙 벌어진 상태로 제 임무를 그만 포기하고 만 것이다.

세상 모든 것이 한꺼번에 마비돼버리고 말았다. 단 한 번의 리모컨 작동으로 모든 게 처리될 수 있도록, 편리하게 집약해놓은 설비시스템은 어느 것 하나 집주인 마음대로 작동되지 않았기에, 다들 그저 발만 동동 구르지 않을 수 없었다. 오로지 인간의 편리와 욕망의 방향으로 도구들을 배치해놓은 한계를 미리 본 것일 수도 있다.

아니, 어쩌면 우리 곁에 있는 듯 없는 듯 다소곳하게 웅크리고 있던 그 '사용도구'들의 반란이었던지도 모른다. 그동안 밤새 비상대기 하느라 배관이란 배관에는 대부분 물이나 전기 등 유체가 담겨 있었으며, 거기에 또 수압과 전압이라는 막중한 압력까지 감내하고 있었으니, 어찌 파곤하고 지치지 않을 수 있었으랴?

아둔하게도 나는, 얼어 터지고 갈라진 지난겨울의 그 혹독한 혼란을 겪고 나서야, 새삼 '항시' 비상모드로 전환되어 있어야 하는 그들의 숙명을 깨닫게 된 것이다. 그러나 어쩌랴? 현실과 유리된 가상세계로 더 깊숙이 진입해 있을 내일 아침에는, 그 모든 '사용도구'들이 더욱더 가혹한 '비상대기' 명령만 연이어 수행하고 있을 텐데…….

Green Architecture

(주) 지에이환경기술원
최상의 분석력과 사회적 책임감을 바탕으로 녹색건축과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Barrier Free) 인증 컨설팅을 One Stop 서비스 하는 전문기업

목적
녹색건축 및 건축물에너지 산업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친환경 기술 및 녹색건축 문화 보급

주요업무

- ▶ 녹색건축 인증 컨설팅
- ▶ 제로에너지 및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컨설팅
- ▶ 건축물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 컨설팅
-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Barrier Free) 인증 컨설팅

녹색건축 인증 컨설팅
(G-SEED Consulting)

녹색건축인증제도
지속 가능한 개발의 실현을 목표로 인간과 자연이 서로 친화하여 공생할 수 있도록 건축의 전 생애를 대상으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건축물의 환경 성능을 인증하는 제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컨설팅
(Barrier Free)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입산부 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개별 시설물이나 지역을 접근, 이용, 이동하는 데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 설계, 시공, 관리 여부를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의 구축 및 조성을 촉진하고자 함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컨설팅
(Building Energy Efficiency Consulting)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건물의 에너지 성능이나 주거 환경의 질 등 객관적인 정보를 받고 건물의 가치를 인정받아 건설사업주체, 소유주체, 관리 주체 및 건물 사용자 등 건물과 관련된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제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컨설팅
(Zero Energy Building Consulting)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에너지자립률, 건물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평가하여 인증함으로써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도모하는 제도

ONE STOP SERVICE

Tel 062)373-3131 E-mail gaarch0801@naver.com
Fax 062)373-3132 H.P 010-3086-8789 대표 이정훈

광주광역시건축사회 답사동호회 2025년 9월

- 송도국제도시, 인천 차이나타운 일대 답사기 -

선형중 건축사 / (주)한길 종합건축사사무소 (광주)

일상 속의 비밀상, 비밀상 속의 일상

[계획된 현대의 "비밀상"]

세상에 계획대로 되는 일이 없다더니, 전혀 예상에 없던 답사기를 급작스레 쓰게 되었습니다. 글이라는 걸 써본 지 몇 년은 지나, 글쓰기가 제게는 '비밀상'이 되어 버렸습니다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일상을 벗어난다는 행위 자체가 '답사'와 맞닿아 있기도 합니다.

송도국제도시는 처음 와보는 분들이 흔히 "외국 같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좀 더 정확히는 '외국'이라기보다 '새로 개발된 국제도시의 느낌'에 가깝다고 보는 편이 맞겠지요. 어쨌든 우리가 주변에서 체감하는 '일상적인' 도시는 아닙니다.

예컨대 스카이라인, 센트럴파크, 건물 파사드 디자인이 그런 분위기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은 원래 사진이 잘 나오기로 유명해서, 전문 사진가들이 광고 사진이나 영상으로 도시·건물·실내공간들을 많이 담아 왔지요.

그런 멋진 사진들은 다른 분들이 많이 담으셨으니, 저는 제가 기억해 두고 싶어 찍어 둔 사진들과 함께, 갖고 있던 자료들에, 잡다한 생각을 조금 곁들여 글을 써보려 합니다. 이 글을 답사 후기로 볼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후기로는 답사 때 찍었던 사진들과 함께, 예전에 송도를 들렸을 때 찍어 둔 사진들과, 오후에 다녀온 인천 차이나타운 일대의 건물 사진을 조금 섞어 올리겠습니다.

송도국제도시 초기에 미국 Gale사가 참여하던 시절, 마스터플랜 용역사인 KPF가 본인들의 계획에 대해 설명한 책자 중 한 페이지입니다. "계획된 이질성"이라는 키워드로, 원래는 역사적 과정 속에서 생겨나는 공간의 풍부함을 담기 위해, 구도심의 다양한 도시적 구조를 의도적으로 디자인하려 했다는 개념이지요.

이들은 이러한 풍부함을 담기 위해, 시드니, 시카고, 베니스, 필라델피아, 서베너, 파리, 뉴욕, 런던의 도시 구조를 중첩하여 계획을 했다고 합니다. 옆의 최종 마스터플랜 곳곳에 공간구조의 흔적들이 보입니다.

어쨌든 '정형(일상)'을 벗어나고자 한 도시 구조에서 이어지는 건축·외부공간 디자인의 패턴, 그리고 '비정형(비일상)' 속에서도 큰 방향은 일관되게 유지하되,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수학적 질서와 경제성을 고려하여 조금씩 변주해 가는 과정들과 더불어, 깔끔하게 디테일을 유지해 가고자 하는 방향을 흥미롭게 생각하기에, 가능한 선에서 따라가 보았습니다.



송도 국제도시 주경 [2019.07]

- Planned Heterogeneity "계획된 이질성" -



- Urban Archetype Overlay "도시 원형의 중첩" -



from NEW SONGDO CITY ©Kohn Pedersen Fox Associates PC



from 송도 정보화 신도시 국제업무지구조성사업
©Gale International



롯데마트 [2019.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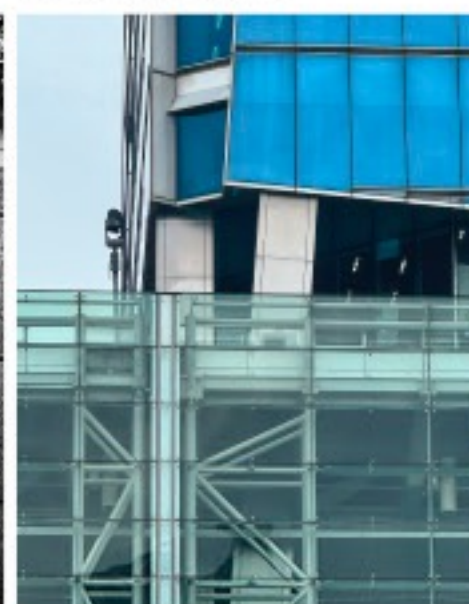
컨벤시아 [2019.08]



더샵 송도센트럴파크 3차 [2025.09]



센트럴파크 [2025.09]



POSCO E&C [2025.09]



국립세계문자박물관 [2025.09]

[발생한 시간적 "비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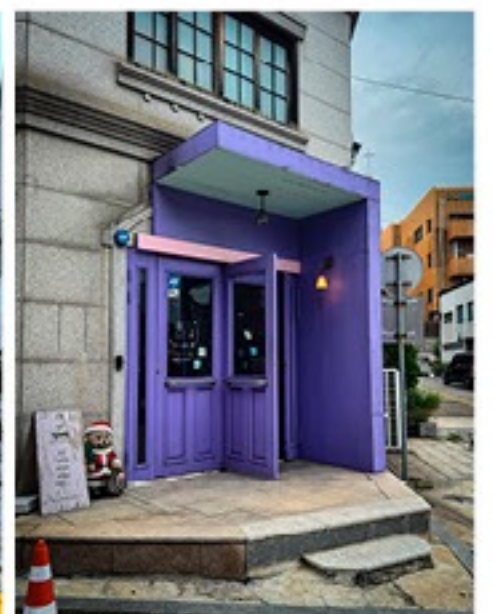
오후에는 인천 차이나타운/동화마을을 답사했습니다. 일제강점기 근대건축의 디테일과 여러 문화가 뒤섞인 모습을 살피는 재미가 있었어요. 관공서 창에 붙인 다이크로익 필름, 목재 회전문 같은, 어찌 보면 키치적인 장면들도 흥미로웠습니다. 다양성을 인정할 때 문화가 풍성해진다는 말처럼, 얼핏 보기에 무질서해 보이는 풍경도 나름의 개성과 재미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인천 차이나타운 [2025.09]



인천 중구청 [2025.09]



인천 동화마을 [2025.09]

[비밀상 속 일상, 일상 속 비밀상]

송도국제도시는 초기부터 개인적으로 업무차 자주 들렀던 편이라, 나름 익숙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찾을 때 마다 여전히 '비밀상'같은 새로움이 있습니다.

최초에 생긴 인천경제자유구역 이후로, 광주에도 5기로 경제자유구역이 도입되었는데, 송도처럼 디자인 기반으로, 스카이라인·도시 인프라·조경계획이 일관된 컨셉으로 움직이는 도시가 되면, AI·미래·에너지 등을 주제로 한 계획이 자연스럽게 따라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광주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는, 자세히 들여다볼 기회가 없었기에 확인하긴 어렵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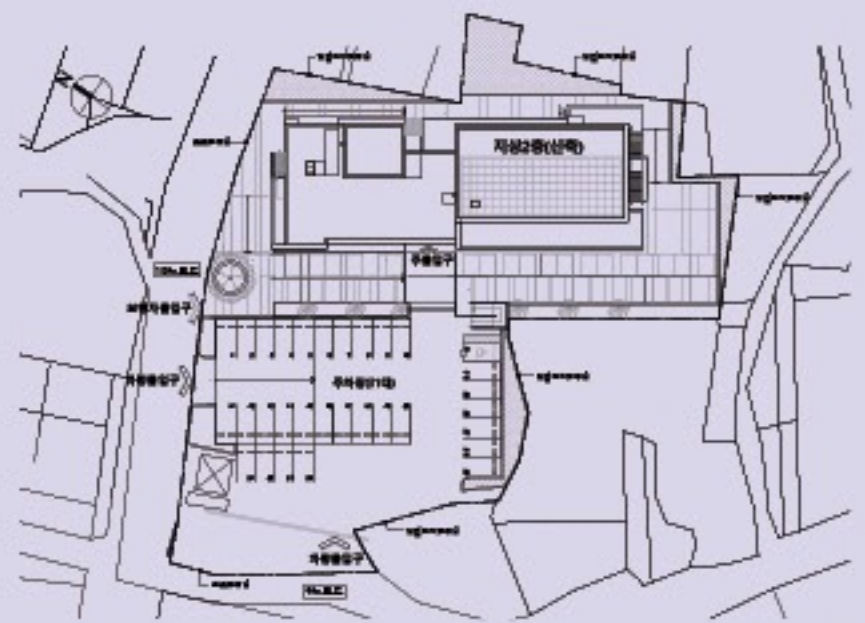
혁신도시·경제자유구역 같은 신규 개발지뿐 아니라, 도심 정비사업에서도 정책의 연속성을 바탕으로 유능한 지역 내외 건축사들이 더 다양하게 참여할 기회가 많아지고, 디테일한 설계 또한 고민하며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지길 바랍니다.

그렇게 '비밀상'이 일상 속으로 스며들며, 도시/건축이 더 단단히 성장하면 좋겠습니다.

금일읍사무소
임경희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이우
광주 남구 천변자로370번길 8-1, 지하층
Tel. 062-675-3335



대지위치 : 전라남도 완도군 금일읍 화목리 160-2번지 외 6필지 / 대지면적 : 3,156.0㎡ / 건축면적 : 706.50㎡ / 연면적 : 1,136.74㎡
건폐율 : 22.39% / 용적률 : 36.02% / 규모 : 지상 2층 / 주용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구조 : 철근콘크리트 구조 / 주요 마감 : 화강석, 금속루버, 로이복중유리



배치도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제22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 그림그리기대회’ 개최
지난 달 30일 광주광역시청 1층 시민홀에서...



역시청 1층 시민홀에서 열렸다.
“무등산이 건물이 된다면?”을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에는 광주지역 유치원생, 초
등학생과 학부모 등 80여명이 참여해, 무등산을 모티브로 한 다양한 건축물과 도

광주광역시건축
사회(회장 강필서)
가 주관한 ‘제22회
광주건축·도시문화
제 그림그리기대회’
가 지난 8월 3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광주광

시 이미지를 창의적으로 표현했다. 행사장은 가족 단위 참가자들로 활기가 가득했
으며, 현장에서는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돼 시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강필서 광주건축사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그림그리기대회가 아이들이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고, 나아가 미래를 그려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
다”고 전했다.

광주건축사회, ‘제29회 광주광역시 건축상’ 수상작 발표
최우수작 3점, 우수작 5점... 총 8점 수상

광주건축사회와 광주광역시는 3일 ‘제29회 광주광역시 건축상’ 수상작 8점을
발표했다. 올해 광주시 건축상은 최우수작 3점, 우수작 5점이 선정됐다.
최우수 작품은 사회공공 부문과 비주거 부문으로 나눠 시상된다. 사회공공 부문
에는 광주 중앙도서관 리모델링 작품을 설계한 원현성 건축사(원 건축사사무소(주)),
김기준 건축사(주)맥스유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가, 비주거 부문에는 ‘연경’을 설



(사회공공 부문 최우수작 '광주중앙도서관 리모델링')

계한 전승찬 건축사(에이작 건축사사무소), '양림돌'을 설계한 임태형 건축사(㈜건축사사무소 플랜)가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우수작은 사회공공 부문 '동구 구립도서관 책정원'

을 설계한 박동준 건축사(㈜그림포에이 건축사사무소)와, 주거 부문 'White Brick'의 설계자 임태형 건축사(㈜건축사사무소 플랜), '비테라인테라스'를 설계한 김준철 건축사(㈜건축사사무소 에코플랜), '포시즌'의 김형준 건축사(모아 건축사사무소), 'Hello'의 허만수 건축사(사계절프로젝트 건축사사무소)가 각각 수상자로 선정됐다.

사회공공 부문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광주 중앙도서관 리모델링'은 기존 건물의 딱딱하고 무거운 외관을 새롭게 정리하고, 다양한 시도와 금속 재료 등을 활용해 현대적 감각을 구현, 지역의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했다. 비주거 부문 최우수작 중 하나인 '연경'은 보행 접근로와 정원을 결합해 생태적 요소를 담았으며, '양림돌'은 불규칙한 대지 위에서 도시 흐름을 확장하는 설계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수상작들은 오는 10월 21일부터 24일까지 시청 1층 시민홀에서 열리는 '제22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에서 전시되며, 광주건축단체연합회 누리집(<https://gjfika.org>)에서도 온라인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광주건축사회 강필서 회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작품을 출품해 주신 건축사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광주시와 협력해 지역 건축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수상작들은 본지 11~13면을 참조하면 된다.

광주건축사회, 2025년 인천 아시아건축사대회 참가 및 건축물 투어

아시아 24개국 건축사·학생 등 1만여명 참가...



광주건축사회는 지난 9월 11일부터 12일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 일원에서 열린 2025 인천 아시아건축사대회에 참가했다. 이번 대회는 대한건축사협회와 인천시가 공동 주최했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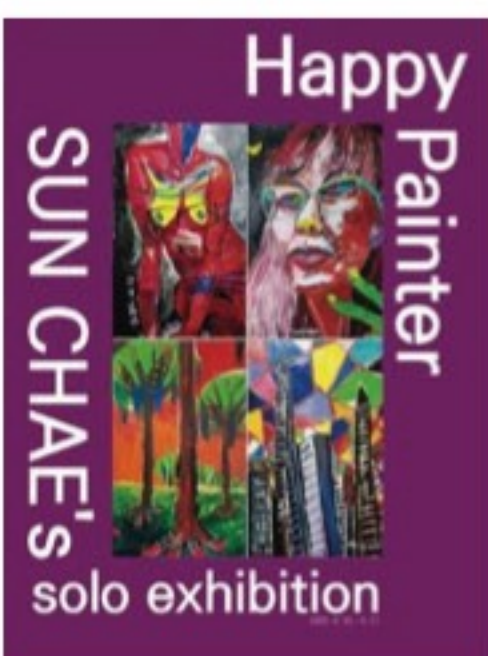
'A Better Tomorrow(더 나은 미래)'를 주제로 기후변화와 도시화 등 인류가 직면한 현안 속에서 건축의 역할과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건축사의 사회적 책임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개회식에는 김재록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을 비롯해 유정복 인천시장,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 정일영 국회의원 등 정·관계 인사와 아시아 24개국 건축사, 관련 학과 학생, 업계 관계자 등 약 1만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광주건축사회는 대회 기간 동안 전문 교육 프로그램 참여와 건축 투어를 참여했다. 특히 송도국제도시의 현대적 건축물과 인천 개항장 일대의 근대 건축 유산을 탐방하며, 도시와 건축이 지닌 다층적 가치를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필서 광주건축사회 회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회원들이 국제적 시야를 넓히고, 향후 광주지역 건축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건축사회, 김선채 건축사 개인 전시회 'Happy Painter' 개최

지난 10일부터 21일까지 광주 금봉미술관에서...



원색의 강렬한 대비와 자유로운 붓질로 '행복의 화가'라는 별칭을 얻은 김선채 건축사가 개최한 개인전 'Happy Painter'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전시는 지난 9월 10일(수)부터 9월 21일(일)까지 광주광역시 금봉미술관에서 진행됐다.

김선채 건축사는 건축 분야에서의 전문성과 더불어 예술적 감각을 바탕으로 독창적인 화풍을 선보여 왔다. 이번 전시에서도 인간의 감정과 내면을 대담한 색채와 기하학적 구성을 통해 표현하며 관람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포스터 속 작품들

에서 드러나듯, 강렬한 원색과 파편화된 형태들은 서로 부딪히면서도 조화를 이루어 생동감과 치유의 에너지를 전달했다.

전시 관계자는 "김선채 건축사의 작품은 단순한 시각적 자극을 넘어, 삶 속에서 잊기 쉬운 행복의 순간을 환기시켰다"며 "건축가이자 화가로서 그가 지닌 독특한 시선이 관람객들에게 신선한 울림을 주었다"고 전했다.

특히 9월 11일(목) 오후 5시에 열린 초대일시 행사에서는 많은 관람객들이 참여해 작가와 직접 소통하며 작품 세계를 이해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광주대·조선대 건축학전공 졸업 건축작품전 개최

지난 9일~11일 개막식 개최 및 수상작 전시...



(사진 좌 = 광주대 / 우 = 조선대)

광주대학교와 조선대학교 건축학과 졸업작품전이 지난 9월 9일(광주대)과 11일(조선대)에 각각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전시회는 졸업을 앞둔 학생들의 창의성과 실무능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자리로, 지역 내 건축사 및 교수진 등 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먼저 광주대학교 건축학과는 9월 10일 호심관에서 제37회 건축전을 개최하고 졸업작품 전시회와 시상식을 진행했다.

조선대학교 건축학과도 제1공학관 홀에서 제79회 졸업작품전을 개최했으며, 우수 학생에 대한 시상식과 국내 우수 건축 전문가 초청도 함께 열려 행사의 깊이를 더했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광주건축사회 강필서 회장이 참석하여 학생들을 격려하고, 시상과 축하, 테이프 커팅식을 진행했다. 이어 조선대학교 졸업작품전에는 정인채 회장이 자리해 행사를 빛내며 학생들에게 따뜻한 격려의 말을 전했다.

광주 회원동정

회원현황 : 472명 (2025. 9. 15. 기준)

•입회

- 박효성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요소 /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22, 와이어스파크지식산업센터 A동 1703호

•변경(소재지)

- 변영섭 건축사 / 청해 건축사사무소 / 광주 북구 첨단연신로 45, 첨단리채비스타워 지식산업센터 제에이동 809호

•결혼

- 김권수 건축사 / (주)보림 건축사사무소 / 차녀 결혼 - 2025년 9월 13일(토)
- 장동원 건축사 / 동원 건축사사무소 / 자녀 결혼 - 2025년 9월 20일(토)
- 정광민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서로 / 아들 결혼 - 2025년 9월 28일(일)

•부고

- 정광일 건축사 / (주)동산 건축사사무소 / 본인상 - 2025년 8월 16일(토)
- 김영호 건축사 / 서강 건축사사무소 / 빙부상 - 2025년 8월 20일(수)
- 김선영 건축사 / 일우 건축사사무소 / 빙모상 - 2025년 9월 11일(목)



이광원&조선희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 광 원



• 전남 영광 출생
• 광주국립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활동
• 순천시청 건축 발정 심의위원
• 전남개발공사 준법감시 위원
• 대한변협 우수변호사 선정(2022년)

광주건축사회 법률자문위원
변호사 조 선 희



• 전남 강진 출생
• 전남대 법학과 졸업
• 전남대 산업대학원 건축공학과 수료
•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건축 공동위원회
• (현) 광주자치경찰 위원
• (현) 대한변협 대의원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로 102-2, 3층 T. 062)234-7417

지도초등학교 그린스마트 스쿨 본관동 개축 및 별관동 리모델링공사

김 정 건축사 / 대진건축사사무소
전남 목포시 하당남부로51번길 29
Tel. 061-284-3777,8

대지위치 : 전라남도 신안군 지도읍 서촌길 52 / 대지면적 : 21,790.0㎡ / 건축면적 : 3,646.55㎡ / 연면적 : 4,562.3㎡ / 건폐율 : 16.73%
용적율 : 20.93% / 규모 : 지상 2층 / 구조 : 철근콘크리트 / 주요마감 : 점토벽돌치장쌓기, 압출성형시멘트판, 외단열토달시스템(스타코플러스)

1. 배치계획

기존 건물과 개축 건물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계획하였으며, 교실은 채광과 환기에 유리하도록 남향으로 배치하였다.

2. 동선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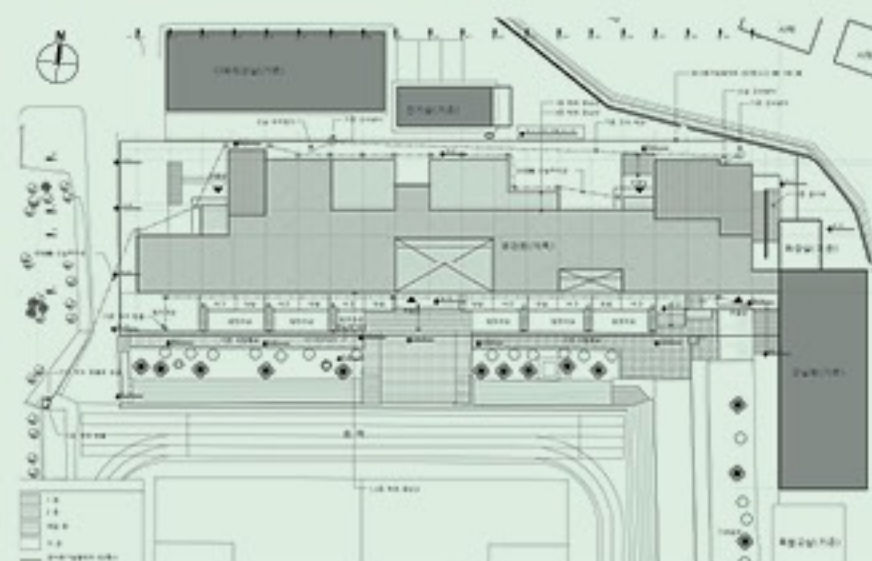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차량 동선과 보행 동선을 구분하였다.

화재 및 비상 상황 시 신속한 대피와 소방차 진출입이 원활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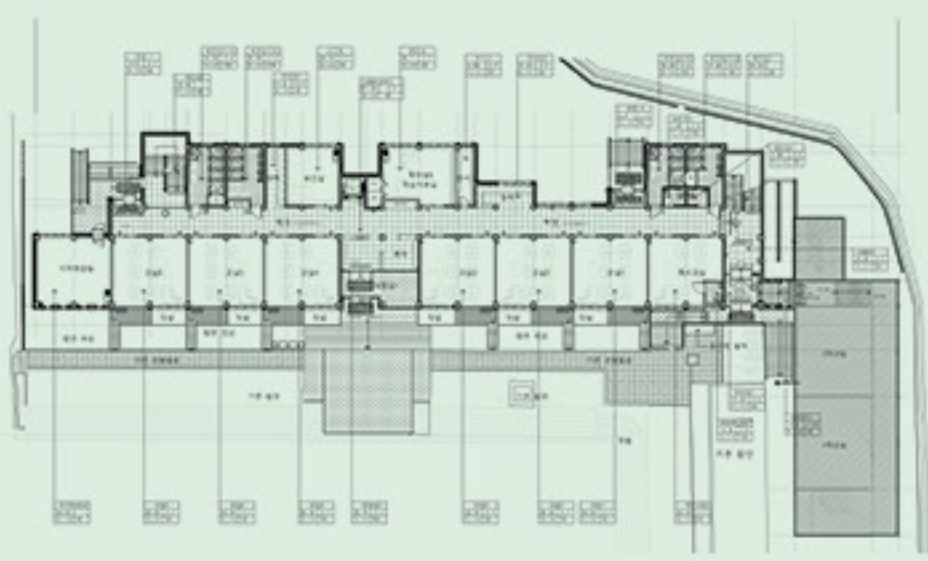
3. 외부공간계획

야외학습공간과 휴게공간을 실내와 연계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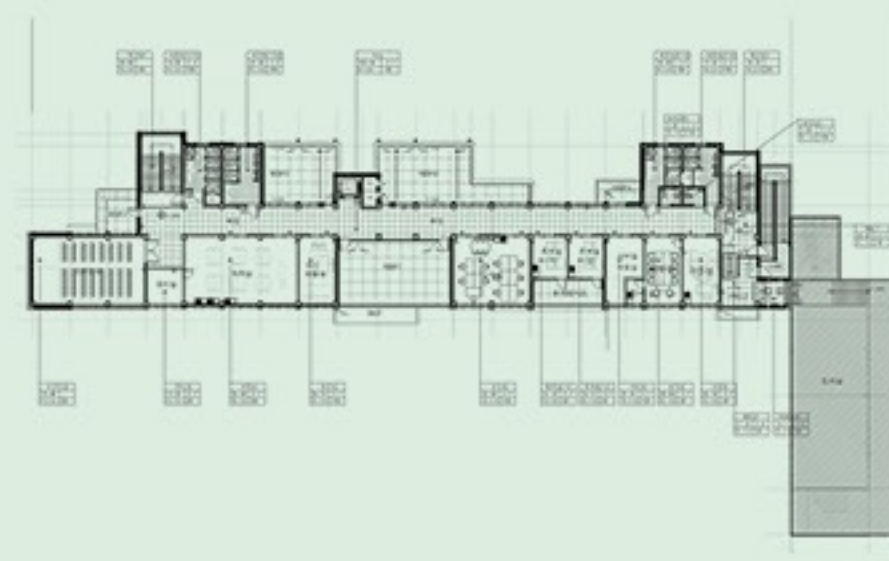
외부공간은 단순한 조경이 아닌 교육 프로그램과 연결된 확장 교실이자 공공공간으로 계획하였다.



배치도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KCMT와 SK 에코플랜트가 함께 만들고 세계로 수출하는 친환경 신소재 철근 KECO-BAR

설계(VE) 및 경제성 검토 문의 대환영!!

-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이명철근 대비 예산 절감)
- 한국도로공사 GFRP보강근 설계 의무화 지침 하달
- 국방부 "GFRP보강근" 신기술 우수제품 활용통보
- 공장, 창고, 근생주택, 축사, 수리시설(농어촌공사), 조선소(항만) 특화자재



목포시 공영주차장



철골구조물(공장)



근생주택



조선소노반 기초

KECO 공식판매처

전국 T. 061-371-1233
F. 062-971-4896
M. 010-3484-2886

건축주/건축사/시공사/
대리점 문의 환영

www.kcmt.co.kr

전남건축사회, 해체공사 역량 강화 교육 실시

시·군 해체공사 담당자 및 전남건축사 회원 대상...



전남건축사회는 지난 8월 14일(목) 순천시 해룡면 동부청사 이순신 강당에서 도 및 시·군 해체공사 담당자와 전남건축사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해체공사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건축물 해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해체계획서 작성과 검토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건축물 해체제도 및 최근 동향 소개 ▲해체계획서 작성·검토 실무, 건축물 해체사고 사례와 현장 부실관리 사례 분석 ▲법령 해설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국토안전관리원과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이 직접 강의를 맡아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내용을 전달했다.

전남건축사회 이경일 회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해체공사 관련 담당자들이 제도 이해와 실무 능력을 동시에 높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건축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영암군, '2025 대한민국 한옥문화 비엔날레' 개최

오는 11월 1일부터 '집은집 : 달빛 아래 한옥' 주제로...



(사진 = 영암군청 제공)

전남 영암군이 지난 26일 군청에서 한옥문화비엔날레 조직위원회 3차 회의를 열고, 올해 행사의 주제를 '집은집: 달빛 아래 한옥'으로 확정했다. 영암군은 11월 1일부터 16일까지 군서면 영암목재문화체험장과 구림한옥마을 일대에서 '2025 대한민국 한옥문화비엔날레'를 개최한다.

한옥문화비엔날레 조직위는, 한옥을 우리의 숨결과 삶이 깃들고 쉼과 같은 존재, 여러 세대를 이어온 공동체 문화가 쌓인 집으로 해석했다.

그 연장선에서 우리 전통 가옥인 한옥이 형성해 온 집 본연의 기능을 올해 행사에서 조명한다는 의미로 비엔날레 주제를 '집은집'으로 정했다.

나아가 한옥 해석에서 나온 '숨' '삶' '쉼' 단어가 초성으로 공유하고 있는 'ㅅ'과 한옥 지붕 모양의 유사성을 살려 행사 포스터를 만들기로 했다.

아울러 달 뜨는 월출산과 구림한옥마을이 어우러 특별한 운치를 선사하는 영암의 풍경을 행사 부제인 '달빛 아래 한옥'으로 표현하고, 이를 형상화하는 조형물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비엔날레 주제 전시관과 함께 구림한옥스테이 특별전시, 영암군립하정웅미술관과 영암도기박물관 연계 전시, 지역작가 전시 및 체험 프로그램, 구림공고 한옥건축학과 체험행사 등도 협의했다.

영암군은 한옥문화비엔날레 조직위와 함께 영암군민이 참여하는 행사를 만들고, 11월 동시 개최되는 목재누리페스티벌, 달빛뮤직페스티벌, 월출산국화축제, 마한축제 등과도 연결해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축제로 이번 비엔날레를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전남 무안군, '신청사 건립공사 설계공모' 추진

지하 1층 ~ 지상 6층 공공업무시설... 사업비 약 615억

전남 무안군이 신청사 건립을 위한 설계공모를 공고하며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갔다. 군은 16일 '무안군 신청사 건립공사 건축설계공모'를 일반공모 방식으로 발표했다. 참가 등록은 오는 22일까지이며, 작품 접수는 11월 27일에 마감된다. 이후 12월 4일부터 심사를 거쳐 8일 당선작을 발표할 예정이다. 설계비는 약 34억 원으로 책정됐다.

새 청사는 현 군청 부지(무안읍 성동리 일원, 3만 1,811㎡)에 연면적 1만 9,874㎡ 규모로 조성된다. 지하 1층~지상 6층의 공공업무시설로, 군청사(1만 4,308㎡), 군의회 청사(1,532㎡), 지하 주차장(4,034㎡) 등이 포함된다. 총 사업비는 약 615억

원으로 추산된다.

무안군은 기존 청사를 철거하고 공사 기간 중 행정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단계별 건립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광장·녹지·주차장 등 외부 공간과의 조화를 강조하며, 경사지 지형을 활용해 불필요한 토목·지하 공사를 줄이고 안전성과 경제성을 함께 고려한 설계를 요구했다.

1969년 준공된 현 청사는 54년이 지나면서 노후화가 심각하다. 콘크리트 균열과 철근 노출 등으로 구조 보강이 불가피하며, 2017년 정밀안전진단에서도 C등급을 받아 재난 취약성이 지적됐다. 수직 증축도 불가능해 행정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설계용역은 착수일부터 1년간 진행되며, 군은 이르면 내년에 착공해 2028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남 순천시, '2025 대한민국 국토대전' 대통령 상 수상

저전동 원도심을 탈바꿈시켜 도시재생에 기여...



(사진 = 순천시 제공)

전남 순천시는 국토교통부, 국토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이 주최하는 '2025 대한민국 국토대전'에서 대통령령상을 받았다.

올해로 17회를 맞는 '대한민국 국토대전'은 국토경관의 품격을 높이고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공간디자인 우수 사례를 발굴·시상하는

권위 있는 공모전이다.

올해 국토대전은 문화경관, 가로·광장, 주거·상업·업무단지, 공공건축, 공공디자인, 사회기반시설, 특별부문, 경관행정 등 총 8개 부문에서 공모가 진행됐다.

순천시는 특별부문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한 공간디자인' 분야에 '정원을 품은 비타(vita)민(民) 커뮤니티, 저전골'을 출품, 전문가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국민투표를 거쳐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이 사업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197억원을 투입해 쇠퇴했던 저전동 원도심을 '정원'을 매개로 새로운 주민 커뮤니티와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킨 혁신적 도시재생 프로젝트다.

빈집·유휴부지를 활용한 '테마포켓정원', 침수 문제를 해결한 '빗물가로정원', 개인 주택 담장을 허물어 개방한 '이웃사촌정원', 학교·마을·종교시설을 잇는 '역사정원' 등 총 19곳의 정원을 조성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지역 공동체와 함께 사람 중심의 공간을 만들기 위한 이 노력이 대한민국 국토대전에서 인정받아 기쁘다"며 "지속가능한 정원도시로서 순천의 브랜드 가치 강화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남 회원동정

회원현황 : 461명 (2025. 9. 15. 기준)

•입회

- 정성택 건축사 / 네오 건축사사무소 / 전남 순천시 서면 강청윗길 5

•부고

- 백진영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진 / 시부상 - 2025년 7월 31일(목)

- 서란경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란 / 모친상 - 2025년 7월 31일(목)

- 조익선 건축사 / 선진 건축사사무소 / 빙모상 - 2025년 8월 9일(화)



고객을 기쁘게 세상을 아름게
반석기초이엔씨(주)

GeoCon (방재신기술) 펄이기초공법
침하지반보강/복원 로타리파일(헬리컬)
EcoSM 지반개량 강관압입파일
마이크로파일

New, Different, Better

호남지사장 / 이사 김유성

010. 5007. 8437 | 3rsinhwa@hanmail.net

전화 070-4482-0257 팩스 062-975-0140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리로208번길 43-22,
와이어스파크 A동 1114호(오룡동)

INNOBIZ기업 | ISO 9001인증

본사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고재로 141-16

전화 031-577-1673 팩스 031-577-1674

www.bs-base.co.kr



힐스테이트어울림 효자 아파트

김희순, 강문수 건축사 / (주)윙그룹 건축사사무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남로 82, 서도타워 402호 / Tel. 063-226-2121
김종태 건축사 / (유)건축사사무소 에이치건축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로 51, 4층 / Tel. 063-237-5070

당초 단독주택 택지개발지구였던 효자동 166-11번 지 일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주거 환경 및 기반 시설의 낙후로 인해 거주민의 생활에 많은 불편이 야기되었던 바, 이에 “효자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로 계획하여 단지 내 거주민 뿐만 아니라 기존 주변 주거지의 환경 개선과 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원활한 차량 통행, 녹지공간 확보를 통해 단지 내 거주민과 주변 거주민이 함께 할 수 있는 소통의 공간을 마련하여 단지와 주변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동주택 단지로 조성하였다.



대지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166-1와 335필지 / 대지면적 : 57,032.30㎡ / 건축면적 : 12,689.9067㎡
연면적 : 193,468.3703㎡ / 건폐율 : 22.25% / 용적률 : 224.65% / 동수(주/부) : 22 / 14 / 세대수 : 1,248



광고 및 이메일 구독신청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을 바랍니다.

- 후면 전면광고 : 1,000,000원
- 후면 외 전면광고 : 700,000원
- 하단광고 : 350,000원
- 하단1/2광고 : 200,000원
- 구독료 : 무료
- 구독신청 방법 :
성명, 이메일 주소 작성 후
gjkira@empas.com 발송

건축문화사랑 신문

T. 062)521-0025~6 F. 062)528-0026



전북특별자치도, '제26회 건축문화상 공모' 안내

5년 이내 사용승인받은 건축물... 사용승인 부문, 재학생·휴학생을 대상... 계획 부문으로 구성



전북특별자치도가 '제26회 전북특별자치도 건축문화상' 공모를 시작하며, 창의적이고 우수한 건축 인재 및 작품 발굴에 나선다. 이번 공모는 건축문화의 저변 확대와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한 전북의 대표 건축 행사로, 도내 최고 권위의 건축상으로 평가받는다.

건축문화상 공모는 △사용승인 부문 △계획 부문으로 구성된다. 사용승인 부문은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사용승인을 받은 공공·민간 건축물이 대상이며, 가설건축물이나 리모델링 사례도 포함된다. 특히 올해는 조경관리실태평가와 연계해 도시 녹지 공간 조성 및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한 사례도

함께 평가한다.

계획 부문은 전국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을 대상으로 자유 주제의 건축계획 또는 기술계획 작품을 공모하며, 창의성과 실험성이 중점 평가된다. 젊은 건축가들의 상상력을 지역 건축문화에 더하는 기회로, 학생 부문 상금도 지난해 4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으로 상향됐다.

작품 접수는 10월 27일(월)부터 28일(화)까지 전북도청 공연장 1층 로비에서 현장 접수로 진행된다. 수상작은 11월 5일 발표되며, 시상식과 전시회는 오는 11월 18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건축문화제' 기간 중 열릴 예정이다.

건축문화제는 오는 11월 18일부터 23일까지 전북도청에서 열린다. 시상식과 수상작 전시 외에도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된다.

건축문화제는 시상식 외에도 수상작 전시와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행사로 꾸려진다. 올해 주제는 '2036년 올림픽 유치를 위한 창조적 비전을 제시하며, 건축인들의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으로 미래 건축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간다'로, 전북의 미래를 건축을 통해 조명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전북특별자치도 건축문화제, 숏폼 영상 공모전 개최

10월 12일까지 전북의 건축과 조경의 아름다움을 영상을 제작



전북특별자치도가 11월 열리는 '제26회 전북특별자치도 건축문화제'를 앞두고 도민과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숏폼 영상 공모전을 연다.

이번 공모전은 전북의 건축과 조경이 지닌 아름다움과 가치를 짧은 영상 콘텐츠에 담아내 대중과의 소통을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주제는 ▲'건축, 삶의 무대가 되다' ▲'초록빛 숨결, 건축에 물들다' 분야이다. 생활 속 건축물에서 펼쳐지는 생생한 풍경과 건축·조경이 어우러진 장면을 담아내며, 대상은 전북특별자치도 내 건축물로 제한된다.

참가 자격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가능하며 개인 또는 3인 이하 팀 단위로 참여할 수 있다. 1인(팀)당 최대 2작품까지 출품할 수 있다.

응모자는 건축문화제 공식 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서와 기획안 등을 내려받아 완성된 영상을 본인 SNS 계정(유튜브 쇼츠, 인스타그램 릴스 등)에 업로드한 후 서류와 함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작품 접수는 9월3일부터 10월12일까지 40일간 진행된다. 이후 전문가 심사를 거쳐 대상 1점, 최우수상 1점, 우수상 3점 등 총 5개 작품을 선정하며, 상장과 함께 총 21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수상작은 오는 11월18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건축문화제 기간 중 시상식과 전시를 통해 일반에 공개된다.

특히 올해 건축문화제는 숏폼 영상 공모전 외에도 체험 프로그램과 시민 참여형 행사로 다채롭게 꾸며지며, '하계올림픽 유치 붐업 특별부스'도 운영될 예정이다.

전북특별자치도, 제1호 우수건축자산으로 '군산시민문화회관' 등록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역의 정체성을 지키는 계기가 될 전망...



(사진 = 군산시청 제공)

전북특별자치도는 군산시민문화회관을 '제1호 우수건축자산'으로 공식 등록했다.

이번 결정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됐으며, 이는 단순한 건축물 보존을 넘어 지역의 정체성과 시민들의 삶의 흔적을 지켜내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군산시민문화회관은 대한민국

국 현대건축 1세대인故 김종업 건축가의 유작으로, 1989년 개관 이래 군산 문화 예술의 심장 역할을 해왔다.

해양도시 군산을 상징하는 '배(船)' 모양의 지붕과 전통 건축의 곡선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디자인은 건축적 가치를 넘어 지역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했다.

민관협력형 도시재생 모델을 통해 리모델링을 거쳐 2024년 12월, 생활예술 중심의 열린 문화플랫폼으로 재탄생하며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왔다.

김형우 도 건설교통국장은 "군산시민문화회관의 가치는 건물 자체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함께했던 시민들의 기억과 지역 문화의 흐름 속에 있다"며 "앞으로도 전북의 건축자산을 보존하고 활용하여 지역문화 진흥과 도시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북 이길환 건축사(주)길 종합건축사사무소 이엔지, 고창군장학재단에 기탁

고창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장학금 1004만원 후원...



(사진 = 고창군청 제공)

이길환 건축사(주)길 종합건축사사무소 이엔지)가 지난달 25일 고창군장학재단에 1004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했다. 장학금은 이길환 건축사를 비롯해 임직원들이 고창군 학생들의 학업과 성장을 응원하기 위해 모금했다.

이길환 대표는 기탁식에서 "지역사회 발전의 근본은 인재양성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학생들이 꿈을 키우고 미래로 나아가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심덕섭 이사장은 "고창군의 미래를 위한 장학금 기탁에 감사드린다"며 "기탁해주신 소중한 장학금은 다양한 장학사업에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해 고창의 미래를 이끌 인재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전북 회원동정

회원현황 : 529명 (2025. 9. 15. 기준)

•입회

- 김희정 건축사 / K 건축사사무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신로 8, 6층
- 황윤창 건축사 / 무제 건축사사무소 / 전북 군산시 조촌4길 15, 201호
- 박난준 건축사 / 레시피 건축사사무소 / 전북 진안군 진안읍 우화산길 6, 2층
- 박검효 건축사 / 효 건축사사무소 / 전북 완주군 용진읍 완주로 212, 3층 303호

•퇴회

- 이병관 건축사 / 가원 건축사사무소
- 김기수 건축사 / CNS 건축사사무소
- 송경규 건축사 / 세림그룹 건축사사무소

•변경(소재지)

- 황공신 건축사 / 홍익 건축사사무소 / 전북 군산시 조촌4길 15, 201호
- 김아름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오른 /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532-4, 1층 1호
- 안현지 건축사 / 지안 건축사사무소 / 전북 정읍시 충정로 245-1 2층

•결혼

- 김동현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그라운드 / 본인 결혼 - 2025년 08월 23일(토)
- 정석균 건축사 / 정석 건축사사무소 / 아들 결혼 - 2025년 09월 13일(토)

•부고

- 전형직 건축사 / 동서 건축사사무소 / 배우자상 - 2025년 09월 02일(화)

책 소개 _ 김다현 학생기자 / 조선대학교 건축학과(5년제)

디자인이 한눈에 보이는 책방도감

건축지식 편집부 / 현익출판 / 2024. 09. 27.

요즘 책을 온라인으로 쉽게 주문할 수 있는 시대에 '왜 여전히 사람들은 오프라인 서점을 찾을까?'라는 질문은 이 책의 출발점이자 독후감의 핵심을 이루는 물음이라고 생각한다. <디자인이 한눈에 보이는 책방도감>은 단순히 책을 판매하는 공간을 넘어, 서점이 어떻게 지역의 문화적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방문객을 끌어들이고 오래 머물게 하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보여준다.

책은 일본 전역의 아름다운 로컬 서점 40곳을 소개하며, 각각의 철학과 개성을 담아낸 공간 연출과 기획을 시각 자료와 평면도를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특히 인상 깊었던 점은 이 서점들이 단순히 책의 나열 방식이나 인테리어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동네와의 관계, 지역 정체성을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치열한 고민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고양이를 테마로 한 '캣츠 마우 북스', 금붕어의 도시 특색을 살려 공간을 꾸민 '도훈'처럼, 서점이 특정한 콘셉트를 통해 사람들의 흥미를 끌고, 나아가 지역 고유의 문화를 강화하는 사례들은 인상적이었다.

목차에서 보듯이 책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1장 '고객을 위한 서점 만들기'에서는 계산대 위치, 전면부 연출, 인테리어와 식물 배치 같은 세부적인 공간 디자인 요소부터 절도 방지나 운영 자금 계획 같은 현실적 문제까지 다룬다. 이 부분을 읽으며 서점이라는 공간이 단순히 책을 꽂아두는 곳이 아니라, 작은 카페나 갤러리처럼 고객 경험을 정밀하게 설계해야 하는 복합 공간이라는 점을 새삼 느꼈다.

2장 '책이 돋보이는 서점의 모든 것'에서는 진열 방식과 큐레이션의 힘이 강조된다. 단순히 많이 팔리는 책을 진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어떤 맥락에서 배치하느냐가 서점의 성격과 방문객의 경험을 결정한다는 점은 공간 기획자뿐 아니라 독자로서도 흥미로웠다. 특히 독립출판물이나 기획 전시처럼 '차별화된 경험'을 강조하는 부분이 크게 와닿았다.

3장 '알아두면 좋은 기초 지식'은 도서 유통 구조, 책의 물리적 특성, 음식 판매 조건, 코로나 시기의 대처 등 운영자에게 꼭 필요한 실무적인 지식을 담고 있어 실제 창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책을 읽으며 가장 크게 느낀 점은 "서점은 단순히 책을 파는 곳이 아니라, 지역을 살아 숨 쉬게 하는 문화 공간"이라는 사실이었다. 많은 이들이 '핫플레이스'로 서점을 찾지만, 그 매력은 결국 공간을 기획한 사람들의 철학과 진심에서 비롯된다. 나아가 이런 공간이 있기에 사람들이 모이고, 이야기가 생기며, 동네가 살아나는 것이다. 이 책은 단순히 서점 애호가뿐 아니라, 공간 기획이나 디자인, 도시 문화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꼭 읽어볼 만하다. 특히 독립서점 창업을 준비하거나, 카페·전시 공간 같은 오프라인 문화 공간을 운영하려는 이들에게는 현실적인 조언과 영감을 동시에 제공한다. 개인적으로는, 책 속 사례들을 통해 서점이라는 공간을 넘어 "사람들이 모이고 관계를 맺는 제3의 공간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라는 더 큰 질문을 떠올릴 수 있었다.



결국 <디자인이 한눈에 보이는 책방도감>은 일본의 아름다운 책방들을 소개하는 가이드북이자, 문화 공간을 기획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는 창의적 영감의 보고(寶庫)다. 읽고 난 후에는 단순히 일본의 서점을 여행하는 듯한 즐거움과 함께, 언젠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도 이런 서점이 하나쯤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생겼다. 그리고 만약 내가 공간을 꾸미게 된다면, 책에서 제시한 배치와 운영 팁을 직접 활용해보고 싶다는 구체적인 생각까지 이어졌다.

한 편의 시 _ 윤미순 건축사 / 미 건축사사무소(전북)

침묵

멍하니 시간을 보내며
상대의 행동과 말들을 떠올린다.
또다른 불만과 미움, 화를 만들어낸다.

멍하니 시간을 보내며
내가 했던 행동과 말을 떠올려본다.
또다른 잘못과 미안함, 부끄러움을 찾아낸다.

멍하니 시간을 보내며
서로에 불만, 미움, 화, 미안함, 부끄러움을
꼬리에 꼬리를 물고 축은지심으로 침묵한다.



한 장의 사진 _ 이동희 교수 / 순천대학교



달려라 피아노(Run Piano)

서울특별시 마포구 문화비축기지
2025년 5월 11일

건축문화사랑

2009년 11월 10일 창간

발행처 광주광역시건축사회
발행인 강필서, 이경일, 이성열
편집인 허만수
부편집인 장기섭, 임현정, 육광돈
자문위원 서재형, 정명환, 강동영, 박종호, 박주현, 임태형
전담기자 김중문
편집위원 정영진, 김미리, 김중원, 강성구, 최기성, 설혜순, 오선화, 윤미순, 양창근, 최정미
등록번호 광주광역시라00144
간별 월간
등록일자 2010-01-25
편집및인쇄 레이아웃 T. 070-8277-2589
광고신청 T. 062)521-0026

광고 및 이메일 구독신청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을 바랍니다.

•후면 전면광고 : 1,000,000원
•후면 외 전면광고 : 700,000원
•하단광고 : 350,000원
•하단1/2광고 : 200,000원

•구독료 : 무료
•구독신청 방법 :
성명, 이메일 주소 작성 후
gjkira@empas.com 발송

T. 062)521-0025~6 F. 062)528-0026

건축문화사랑 신문 발전기금을 모집합니다!

•발전기금 : 1만원부터
•후원방식 : 신협 131-009-471898 (예금주 : 광주건축사회)

건축문화사랑 원고모집

건축문화사랑에 게재할 원고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독자사진/지역소식/동호회소식/책/수상/수필/작품노트/건축 작품/독자만평/기타(기행문, 시, 문학작품, 미담, 학위취득, 교수임용 등)

원고마감 : 매달 5일

문의 : 광주건축사회(T. 062-521-0026 / gjkira@empas.com)

1. 건축작품 및 기타를 제외한 모든 원고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
2. 원고에는 작가의 사진과 사주소명, 직책 및 약력을 첨부
3. 원고는 아래 한글, 명조체, 10pt로 작성, 사진은 디지털파일로 제출

제29회 광주광역시 건축상 수상작

- ◎ **시상목적** : 독창적이고 품격 있는 설계로 건축문화 창달에 기여한 우수 건축사 와 건축물을 선정·시상하여 건축사의 창작의욕을 고취하고 나아가 건축저변 확대와 광주지역 우수 건축 장려를 통해 「광주,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 시책을 제고하기 위함.
- ◎ **시상근거** : 광주광역시건축조례 제45조(건축상 등)
- ◎ **응모대상** : 광주광역시 관내에서 최근 5년 이내(공고일 기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이나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건축물 또는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에 따라 준공검사 및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각 시상 부문별 리모델링 포함) 다만, 광주광역시에서 이미 건축상을 받은 건축물은 제외함.
- ◎ **공모기간** : 2025년 7월 1일부터 2025년 7월 25일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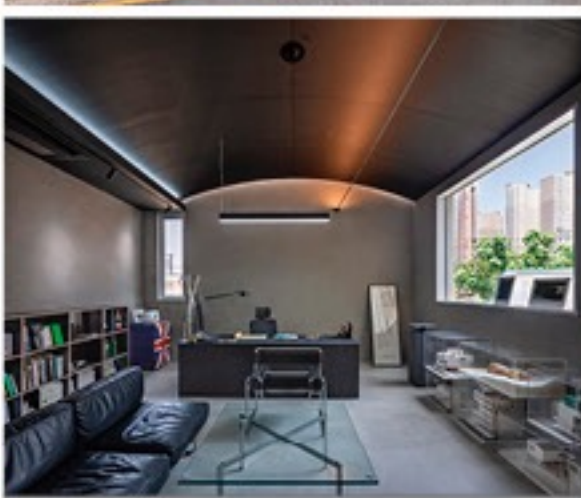
비주거 부문 최우수상 ‘연경’

설계자 : 전승찬 건축사 / 에이작 건축사사무소
시공자 : 서흥열, 최경채 대표 / (주)경서건설
사 진 : 윤준환 사진작가



비주거 부문 최우수상 ‘양림돌’

설계자 : 임태형 건축사 / (주)건축사사무소 플랜
시공자 : 이현철 대표 / 디엠산업개발(주)
사 진 : 윤준환 사진작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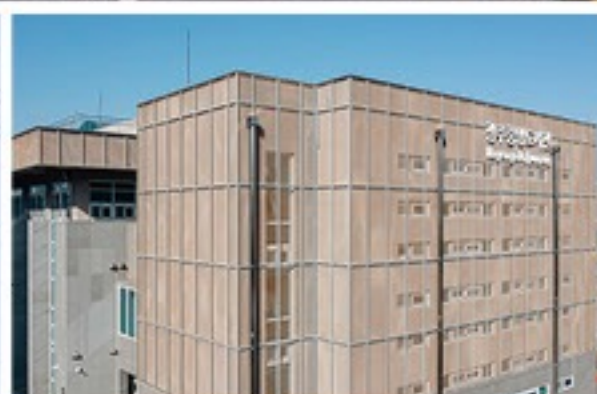
대지위치 : 광주광역시 남구 양림동 491, 492-3, 494 / 대지면적 : 281.00㎡ / 건축면적 : 164.02㎡ / 연면적 : 353.73㎡
규모 : 지상 3층 / 주용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 / 구조 : 철근콘크리트 / 주요마감 : 유로폼 노출 콘크리트, 로이복층유리 외

제29회 광주광역시 건축상 수상작



사회공공 부문 최우수상 '광주중앙도서관 리모델링'

설계자 : 원현성 건축사 / 원 건축사사무소(주)
김기준 건축사 / (주)맥스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시공자 : 강병기 대표 / 남해종합건설(주)
사 진 : 나성희 사진작가



대지위치 :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동 143-14 / 대지면적 : 3,587.8㎡ / 건축면적 : 1,189.86㎡ / 연면적 : 3,939.1㎡
규모 : 지하 1층, 지상 3층 / 주용도 : 교육연구시설(도서관) /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사회공공 부문 우수상 '동구 구립도서관 책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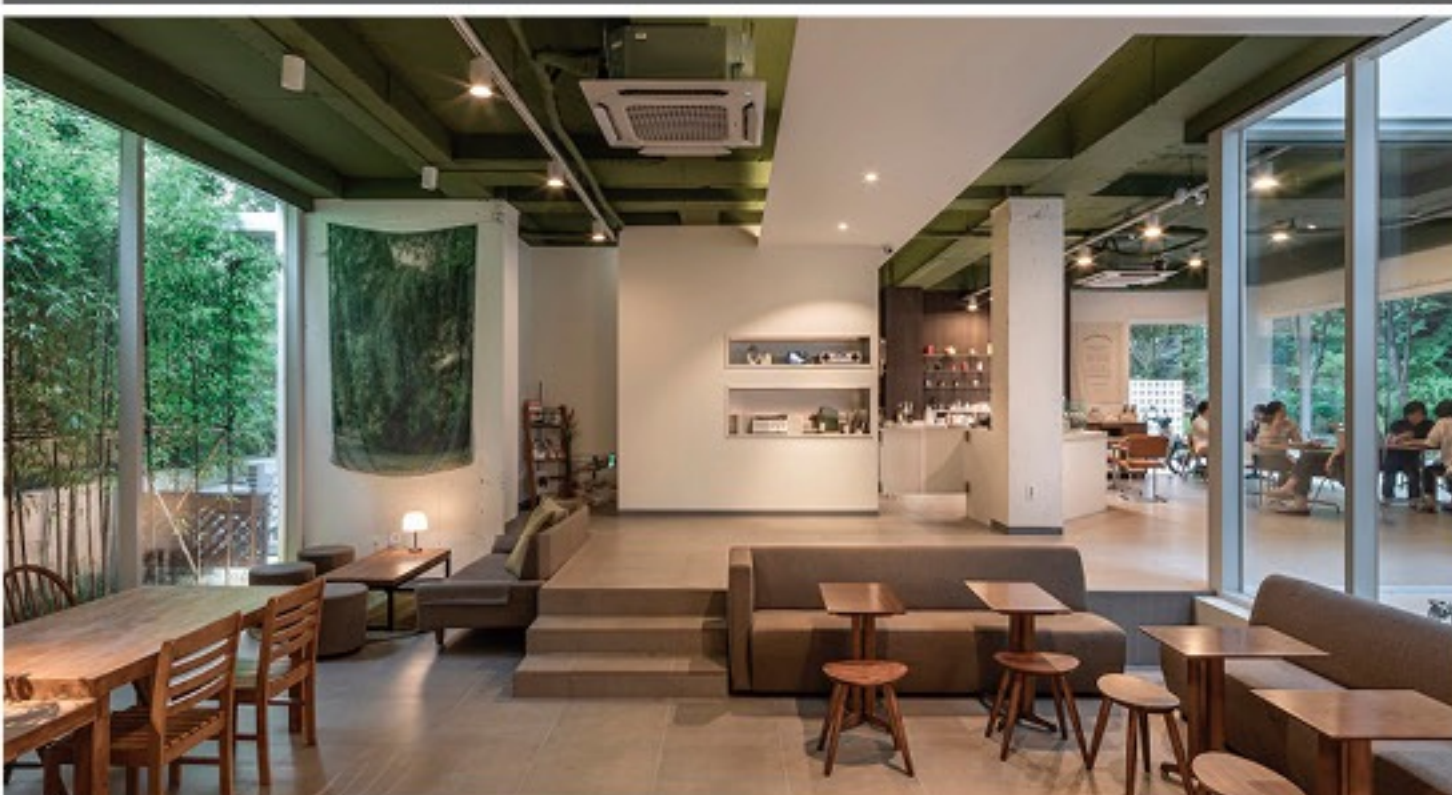
설계자 : 박동준 건축사 / (주)그룹포에이 건축사사무소
시공자 : 박종태 대표 / (주)가인종합건설
사 진 : 자체촬영



대지위치 : 광주광역시 동구 내남동 895번지 / 대지면적 : 2,750.60㎡ / 건축면적 : 1,098.97㎡
연면적 : 2,622.91㎡ / 규모 : 지상 3층 / 주용도 :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주거 부문 우수상 'White Brick'

설계자 : 임태형 건축사 / (주)건축사사무소 플랜
시공자 : 이현철 대표 / 디엠산업개발(주)
사 진 : 윤준환 사진작가



대지위치 :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동 664-11번지 / 대지면적 : 343.30㎡ / 건축면적 : 204.27㎡
연면적 : 425.19㎡ / 규모 : 지상 3층 / 주용도 :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 구조 : 철근콘크리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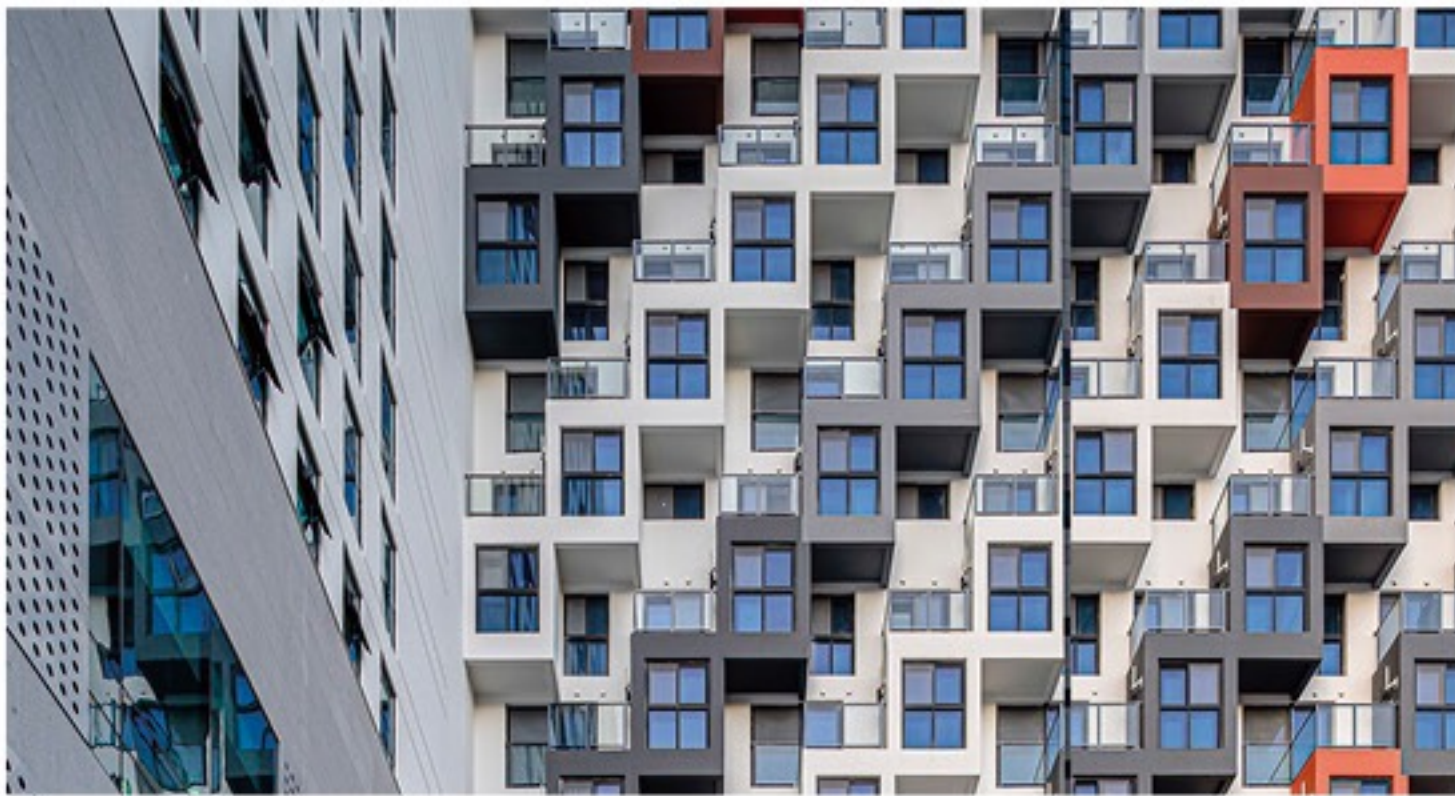
제29회 광주광역시 건축상 수상작

- ◎ 시상 구분 : - 사회공공 부문 : 관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물 / 최우수작(1점), 우수작(1점)
- 비주거 부문 : 민간 발주 건축물 중 비주거 건축물 / 최우수작(2점), 우수작(3점)
- 주거 부문 : 민간 발주 건축물 중 주거 건축물 / 우수작(1점)

소 속	인원	성 명	소 속	인원	성 명
광주전남건축학회	2인	박종현 교수(호남대), 김경원 교수(조선대)	광주건축사회	2인	정명환(위원장), 양병범 건축사
광주전남건축가회	2인	강형주 교수(조선대), 최보은 건축사	광주광역시	2인	정승철 과장(건축경관과), 신승범 팀장(종합건설본부)

비주거 부문 우수상 ‘비테라인테라스’

설계자 : 김준철 건축사 / (주)건축사사무소 에코플랜
시공자 : 염창곤 대표 / (주)성암토건
사 진 : 김성희 사진작가



대지위치 : 광주광역시 동구 금동 153 / 대지면적 : 2,899.70㎡ / 연면적 : 24,871.34㎡
규모 : 지하 2층, 지상 19층 / 주용도 : 업무시설(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비주거 부문 우수상 ‘포시즌’

설계자 : 김형준 건축사 / 모아 건축사사무소
시공자 : 박종우 대표 / (주)제이지주택건설
사 진 : 정 란 사진작가



대지위치 : 광주광역시 동구 내남동 307-20 외 4필지 / 대지면적 : 1,921.00㎡
건축면적 : 658.44㎡ / 연면적 : 3,476.46㎡ / 규모 : 지하 1층, 지상 4층 /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비주거 부문 우수상 ‘Hello’

설계자 : 허만수 건축사 / 사계절프로젝트 건축사사무소
시공자 : 문병윤 대표 / 강호종합건설(주)
사 진 : 김용성 사진작가



대지위치 :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동 486-1 / 대지면적 : 978.00㎡ / 건축면적 : 574.59㎡
연면적 : 2,847.31㎡ / 규모 : 지하 2층, 지상 5층 /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